

정보 TIP

SKT-KTF 3G 단말기 잠금 해제

오는 7월부터 SK텔레콤과 KTF 3세대(3G)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 구별없이 휴대전화를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세대 단말기 가입자 인증모듈(USIM)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SKT와 KTF의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단말기 사용자들은 이동통신업체를 바꾸더라도 USIM만 바꿔 끼우면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쓰던 단말기의 USIM 카드만 끼우면 돼 단말기 가격 인하도 기대된다.

LGT 무료 사이트 오픈넷 프리존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 포털 이자이를 개편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무료 사이트 모음인 '오픈넷 프리존'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가입자들은 휴대전화에서 이자이어 버튼을 누르면 날씨, 뉴스, 증권정보, 소풍, 영화예매 등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고, 초기화면 검색창에서 네이버·다음·야후 등 포털을 선택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벨소리, 음악, 게임 등 12개였던 유료 콘텐츠는 8개로 단순화했다.

KT 네트워크 시스템

전남망센터로 통합

KT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에 흩어져 있는 일반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 회선 등 KT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에 들어갔다.

25일 KT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사·지점에서 분산 운영했던 232종 4만9천296개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KT전남망센터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 등 광주·전남 전 지역의 KT네트워크를 24시간 실시간 원격 감시, 제어, 통제할 수 있게 돼 통신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조치가 가능해졌다.

이 센터에는 155개급 대응용 광케이블에 KT가 자체 개발한 통신망 제어 장치인 '망관리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을 연결한 200여대의 최첨단 모니터 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24시간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 유무선 통합 속도 낸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원서리를 맞은 '통신 공룡'들이 텔레마케팅(TM)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리점을 통한 마케팅 경쟁에 일제히 뛰어들었다.

KT가 KTF 소매장을 통합, 지난 22일부터 공동 활용한다 이어 하나로텔레콤도 모회사인 SK텔레콤 매장을 공동 사용키로 하는 등 그동안 전체 영업의 90%를 TM에 의존해 왔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영업방식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여기에 통합 시너지가 워낙 위대한 결합상품이 아니라 출시될 예정이어서 '오프라인 마케팅 대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TM중단...KT '미소' 하나로텔·파워콤 '한솔' 개인정보 유출 파문 여파로 통신업체들이 잇따라 TM중단을 선언했다. 하나로텔레콤과 KT는 이를 공식화했고 LG파워콤도 사실상 TM은 중단했다.

그동안 사업자간 뺏고 뺏기던 공격적 가입자 유치 경쟁의 중심이던 TM 영업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인력, 판매망 등이 탄탄한 KT는 '표적관리'에 들어갔다.

KT는 이번 TM중단을 IPTV 성장 도약의 호기로 삼고 있다.

송기우 KT전남본부장은 최근 지사·지점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력과 판매망이 갖춰진 KT에게는 이보다 좋은 기회 없다"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KT전남본부는 타 통신업체의 TM중단에 따라 KT상품의 해외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그동안 TM영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현장 판매로 전환하는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과 신생업체인 LG파워콤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 유지는 커녕, 현재 이탈을 막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LG파워콤도 마찬가지다.



KT·KTF 판매망 공동 활용 '선수' 하나로텔·SKT 대리점 공유 '승수'

KT·KTF 판매망 공동 활용 '선수' 하나로텔·SKT 대리점 공유 '승수'

위험도 TM이라는 공격적 마케팅의 상심도 선반 사업자의 가입자를 더 이상 빼앗아오기가 힘들어졌다.

여기에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LG파워콤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조사에 진행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현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입지가 더욱 약해졌다.

△매장 통합...결합상품 대결 격화

KT와 KTF가 서로의 유통망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 고객들은 KT플라자(옛 전화국)나 KTF 소 영업점 어디서나 KT와 KTF의 서비스 신청, 변경 및 요금 납부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KT는 KTF 영업점에서 일반전화와 메가팩스(초고속인터넷), 메가TV 등의 KT상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KT는 통합매장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6월중 결합상품 적용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텔레콤은 "6월부터 하나로텔레콤과 대리점을 공동사용할 방침"이라고 승수했다.

하나로텔레콤도 하나로포스(초고속인터넷)와 이동통신을 묶은 상품이 6월중 출시, 전국의 SK텔레콤 유통망에서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LG파워콤도 지난해 6월부터 LG텔레콤 직영 영업점에서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인 엑스피드를 판매하고 있다. LG텔레콤도 조만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유무선 결합 상품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존 가입자 정보에 의존해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유도한게 사실"이라며 "고객정보 사용이 엄격해지면서 고객들과 직접 만나려는 접점이 전국에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요금 할인 '감 서비스' 중단

휴대전화에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통화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30% 줄일 수 있는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가 이동통신업체들의 반발로 출시 9일만에 중단됐다.

25일 삼성네트웍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출시한 '감 서비스'를 22일 오후 8시를 기해 온라인 신규 가입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www.gaam.kr) 공지를 통해 "모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판단했으나 통신사업자 간 역할 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감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30% 안 국내 통화(10초당 14원)와 평균 79% 안 국제통화를 사용할 수 있어 서비스 9일 만에 1만명 넘게 가입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통업체 반발... 출시 9일만에 서비스 가입 재개여부 불투명

하지만 요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 통화와 달리 기업용 서비스(080 수신자 부담)를 거쳐 이뤄지도록 한 통화 방식이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삼성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과 분쟁이 일고 있어 협의하기 위해 일단 서비스 가입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고흥도사공인중개사
고흥, 녹동터미널옆 (상가부지, 300평) 평당 70만원
비전: 광주에서 고흥우주센터까지 고속도로

첨단월세공인중개사
★급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특색상가사업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옆) 상담전화: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림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빌딩 2층)
건물
●6억 시설급매
●당첨 금액 1800P
●2차 10만원 주유권 포함